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1년 2월 28일(주일) 제1333호



2021년 상반기 공동체 개강예배 일정

서빙고			
날짜	공동체	장소(방법)	시간
2월 27일	김포	유튜브	오후 5시
3월 2일	영등포구로	줌	오후 8시
3월 3일	성북	줌	오후 8시 30분
3월 4일	강촌	줌, 유튜브	오후 8시
3월 5일	서빙고	줌	오후 8시
3월 5일	이수	줌	오후 8시
3월 5일	중종로	웹엑스	오후 8시 30분
3월 5일	용산	줌	오후 8시
3월 5일	이촌	줌	오후 7시 30분
3월 5일	강서	웹엑스	오후 8시
3월 5일	양천	유튜브	오후 8시
3월 5일	광명	실시간 온라인	오후 8시 30분
3월 5일	관악금천	줌	오후 8시
3월 5일	마포	유튜브, 웹엑스	오후 8시
3월 5일	서대문	줌	오후 8시
3월 5일	OCC	줌	오후 8시
3월 5일	성동광진	줌	오후 8시
3월 5일	천양사역	줌	오후 8시 30분
3월 5일	동대문중앙	줌	오후 8시
3월 5일	노원	웹엑스	오후 8시
3월 5일	가정사역	줌, 유튜브	오후 8시
3월 6일	동작	웹엑스	오후 7시
3월 6일	한강	줌	오후 8시
3월 6일	여의도	줌	오후 7시
3월 6일	일산	줌	오후 8시
3월 6일	북누리	줌	오후 8시
3월 7일	신용산	웹엑스	오후 4시
3월 7일	고양은평	줌, 유튜브	오후 7시
3월 11일	특별한 초대	줌	오후 8시 30분

양재			
날짜	공동체	장소(방법)	시간
3월 3일	강남A	줌	오후 8시
3월 4일	강남E	웹엑스	오후 8시
3월 4일	서초A	줌	오후 8시
3월 4일	서초B	줌	오후 7시 30분
3월 5일	강남B	줌	오후 8시
3월 5일	강남C	줌	오후 8시
3월 5일	강남D	유튜브 라이브	오후 8시
3월 5일	경기A	줌	오후 8시
3월 5일	도곡	웹엑스	오후 8시
3월 5일	분당A	줌	오후 8시
3월 5일	서초C	줌	오후 8시
3월 5일	송파B	줌	오후 7시 30분
3월 5일	양재	줌(유튜브 라이브)	오후 8시
3월 5일	Point5	줌	오후 8시
3월 6일	서초D	줌	오후 8시
3월 7일	과천의왕	줌	오후 4시
3월 7일	푸른누리	줌	오후 5시
3월 7일	하모니	줌	오후 8시
3월 9일	송파A	줌	오후 8시
3월 13일	분당B	웹엑스	오후 8시

캠퍼스			
날짜	공동체	장소	시간
3월 5일	부천 믿음, 소망, 사랑	줌	오후 8시
3월 6일	부천 화평	줌	오후 8시
3월 7일	부천 화락	줌	오후 4시
2월 27일	수원 북누리	본당	오후 4시 30분
3월 4일	수원 남누리	본당	오후 8시
3월 5일	수원 서누리	본당	오후 8시
3월 6일	수원 동누리	본당	오후 4시 30분
3월 4일	대전 동누리	본당	오후 7시 30분
3월 5일	대전 서누리	경보빌딩 8층	오후 8시
3월 5일	대전 남누리	본당	오후 8시
3월 5일	대전 북누리	본당	오후 7시 30분
3월 3일	남양주 공동체 연합	본당, 유튜브 동시	오후 7시 30분
3월 5일	평택 공동체 연합	줌	오후 8시
3월 5일	인천 공동체 연합	줌	오후 7시 30분
3월 12일	강동 공동체 연합	줌	오후 8시
3월 5일	양지 동누리	줌	오후 8시
3월 5일	양지 서누리	줌	오후 8시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라!

3월 13일까지 온누리공동체 상반기 개강예배 상반기 아이스쿨 온라인 양육 과정도 개강

2021년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라'를 표어로 내걸고 힘차게 출발한 온누리공동체가 상반기 개강예배를 드린다. 온누리공동체 상반기 개강예배는 2월 27일 김포공동체와 수원 북누리공동체를 시작으로 3월 13일 분당B공동체까지 공동체별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드린다(표 참조).

올해도 다양하고 풍성한 행사가 이어진다. 지난 1월 4일부터 시작된 90일의 기적이 포문을 열었다. 90일의 기적 새

벽기도회, 성경일독, 생명나눔의 기적(헌혈캠페인)이 오는 4월 3일까지 이어진다. 3월 27일~28일에는 대중교통 이용하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고난주간 새벽예배를 드릴 예정이다. 4월 3일~4일은 부활주일, 17일~18일 장애인 주일, 28일~30일 회복축제가 막 오를 예정이다. 5월 1~2일 어린이 주일, 8~9일 아버지 주일, 5월 17일 부모맞춤전도집회가 열린다. 6월 23일부터 25일까지는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마리아행전이 개최될 예정이다. 7월 26일부터 30일까지는故 하용조 목사 10주기 추모주간이다. 8월 2일 Acts29비전빌리지에서故 하용조 목사 10주기 추모예배를 드릴 계획이다.

2021년 상반기 아이스쿨 온라인 양육 과정도 개강한다. 올해 상반기 아이스쿨 양육은 온라인(실시간 강의, 유튜브 동영상 강의)으로 실시된다. 특히 CGN TV가 지난 2월 15일 출시한 국내 최초 기독교 OTT 플랫폼 '퐁당(fondant)' 오리지널 콘텐츠를 선택과목으로 추가해서 수강할 수 있다(관련기사 14면).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국내 최초 기독교 OTT 플랫폼 '퐁당'

구글플레이, 앱스토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CGN TV가 지난 2월 15일 국내 최초로 출시한 기독교 OTT 플랫폼 '퐁당(Fondant)' (이하 퐁당)에 대한 성도들의 관심이 뜨겁다. 구글플레이, 앱스토어,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 CGN TV 홈페이지(www.cgntv.net)에서 퐁당 앱을 다운로드해서 사용 중인 성도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균형 있는 신앙 성장과 건강한 콘텐츠를 이용하려는 성도들의 문이도 한창이다.

기독교 OTT 플랫폼 퐁당은 뉴노멀 시대 신앙성장을 위한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이다. 검증된 복음 콘텐츠를 제공함으로

써 이단, 광고, 유해 콘텐츠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고, 다양하고 우수한 콘텐츠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균형 있는 신앙 성장을 돕는다. CGN TV 콘텐츠뿐만 아니라 퐁당 오리지널 콘텐츠, 타 교회 양질의 콘텐츠를 한곳에서 볼 수 있다. 또한 '신앙성장영역' 점검을 활용해서 사용자의 성향을 파악하고, 인공지능(AI)이 사용자 맞춤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온라인 예배 라이브 기능, 교회 양육 커리큘럼 및 학적관리(LMS) 등 교회별 맞춤 서비스도 제공한다.

문의: 02-792-0691

/ 정현주 기자

날이 갈수록 커지는 은혜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 성경일독, 생명나눔의 기적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 성경일독, 대한민국 피(血)로 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이하 생명나눔의 기적)이 시작된 지 벌써 50여 일이 지났다. 90일의 기적 참가자들이 하나 같이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면서 날이 갈수록 커지는 은혜를 고백하고 있다.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6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양재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진행된다. 온누리교회와 CGN TV 유튜브 채널, 예배당 예배로 참가할 수 있다(관련기사 2~4면).



대한민국 **피**로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

‘90일의 기적’과 함께 90일간 진행되는 ‘생명나눔의 기적’ 헌혈 캠페인



온누리와 함께 90일의 기적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 성경일독 참가자들의 고백



90일의 기적 성경일독을 하고 있는 박희숙 권사(일산공동체), 새벽기도회에 참여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는 최용락 성도(양지 온누리교회), 서빙고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현장(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겠냐고요. 곧바로 그 책을 구입해서 90일 성경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성경 읽는 기쁨보다는 거룩한 부담감으로 말씀을 읽었습니다. 교재를 공부하고, 그날 분량의 성경을 읽고, 묵상까지 꼬박 3시간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그 과정을 꾸준히 하면서 성경 읽는 재미와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 했다면 못했을 텐데 공동체 지체와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고, 격려하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박희숙 권사는 90일 성경 읽기를 순원들과 지인들에게도 적극 권했다. 마침 교회에서 ‘90일의 기적’ 성경일독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박 권사는 이 좋은 성경 읽기를 교회 전체적으로 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놀라고 기뻐했는지 모른다.

박희숙 권사는 90일의 기적 성경일독 단체 채팅방을 5개나 운영하고 있다. 순 채팅방, 가족 단체채팅방, 친정 언니들 단체채팅방, 대학원 친구들 단체채팅방, 동네친구들 단체채팅방이다.

“가족 단체채팅방에는 남편과 성인이 된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언젠가 가족이 다 함께 성경일독을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한 줄 소감을 올리고 있습니다. 친정엄마가 살아생전 새벽기도와 성경 읽기를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그 좋아하는 것을 함께 하지 못한 게 너무 후회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친정엄마와는 함께 하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언니들과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했는데 언니들이 흔쾌히 따라셨습니다. 대학원 친구들이 있는 단체채팅방에는 초신자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90일의 기적에 함께 참가하자고 했을 때 반응이 별로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동네친구들 단체채팅방에는 다니는 교회는 다르지만 90일의 기적에 함께 참가하고 있는 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벌써 90일이 지나면 또다시 90일 성경일독을 하자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순 단체채팅방은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성경 말씀으로 힘과 지혜를 공급받는 은혜의 장입니다.”

/ 정현주, 김영선 기자

지난 1월 4일부터 시작된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와 성경일독이 어느덧 50여 일이 지났다.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와 성경일독은 온누리 공동체의 신앙 성장과 더불어 영적으로 재무장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어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다고 고백하고, 또 어떤 이는 가족과의 관계가 좋아졌다고 마냥 행복해하고 있다. 어떤 이는 말씀을 먹고 마시는 매력에 빠져 ‘성경 읽기 전도자’가 되었다.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와 성경일독 참가자들이 하나 같이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고 고백하고 있다.

최용락 성도(양지 동누리공동체)는 올해를 시작하며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매년 참석했던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열리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 대한 아쉬움 반, 기대하는 마음 반으로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와 성경일독에 참가했다. 바로 그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와 성경일독이 형언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었다. 날마다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불안한 마음을 위로받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모임과 약속이 줄어서 개인적인 시간이 많아졌는데 그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지내려고 합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제게 ‘나에게 집중해라’, ‘내 사랑을 느끼며 살아라’, ‘앞만 보고 달리지 말라’는 감동을 주십니다. 코로나19에 대처하느라 정신없이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주셔서 이제는 걱정이 없습니다.”

이주혜 성도(양지 동누리공동체)는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에 참가하면서 작지만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남편의 신앙을 바라보는 시선과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남편은 모태신앙인데 저와 연애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남편이 저와 함께 각종 양육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데도 제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신앙 성장의 속도가 다른 것이 당연한데도 남편의 신앙이 제가 원하는 만큼 성장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에 참가하는 남편을 보면서 제 시선과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남편과 제가 서로의 신앙 성장을 돕는 동역자가 되어주고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하고, 힘이 되었습니다. 90일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를 아름다운 신앙으로 하나 되게 하는 은혜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90일이 지나면 또다시 90일 성경일독!

박희숙 권사(일산공동체)는 ‘성경 읽기 전도자’다. 이미 2016년부터 ‘90일 성경통독’을 하고 있었다.

“2016년 1월 얼굴만 알고 지내던 공동체 집사님께 연락이 왔어요. <90일 통권통독>이라는 책과 프로그램이 있는데 함께 해보면 어떻

90일의 기적 성경일독 ‘한 줄 소감’ (2월 17일~2월 23일)

· 내 마음이 복잡할 때 주의 위로가 내 영혼을 기쁘게 합니다.
/ 김미경 성도(일산공동체)

· 풀과 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인생이 꽃과 같이 피고 들꽃을 물들일 것입니다.
/ 심우정 성도(분당B공동체)

· 귀를 지으신 이가 내 간구를 들으시고 눈을 만드신 이가 나를 살피사 오늘 하루 걸어가신 내 발걸음을 견고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 심규혁 집사(강남D공동체)

· 세상의 트렌드가 아닌 말씀을 따르게 하소서.
/ 위성규 성도(이수공동체)

· 지혜, 정직, 근면, 성실, 사랑, 부, 명예, 겸손, 분별, 통찰력, 장수, 가정, 정의, 자비, 선한 말 등 여호와의 경외하는 자라면 이러한 특징이 내 안의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길 원합니다.
/ 정세정 성도(무공동체)

· 세상에서 요령을 피우느라 행여 악을 따라 행하지 않도록 나를 돌아보게 하소서. 악을 미워하고, 오직 기쁨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즐거이 찬양하며 살게 하소서.
/ 한옥영 권사(여의도공동체)

· 사랑과 성실, 여호와의 모든 일에서 인정하는 것. 지금 내가 지혜를 구하며 노력해야 할 행동원칙이다.

/ 정미옥 성도(경기A공동체)

· 악한 것과 선한 것의 결과가 구체적으로 적혀있는 것을 보면서 점점 나 자신이 악인의 길을 걷고 있는 건 아닌지 두려워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지만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 김주미 자매(대전 온누리교회 빌리프 대학부)

· 헛된 이 세상을 욕심부리지 않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할 날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회개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 고혜선 성도(관악금천공동체)

· 지혜를 갖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오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면 갖지 못할 법이 없음을 믿습니다.
/ 서병재 순장(경기A공동체)

· 믿는 자의 기준은 세대의 가치와 여론이 아닌 오직 주의 말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여호와와 마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게 하소서!
/ 김지현 성도(인천 동누리공동체)

·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기 원합니다.
/ 이경은 자매(강촌공동체)

·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 안에 거하는 하늘의 신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변치않는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며, 그 품안에 머물게 하소서!
/ 이숙영 성도(강촌공동체)

·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사 11:3). 성령님, 이 선언이 제 평생의 고백되게 하소서. 이사가 선생님, 꼭 천국에서 뵈고 싶어요.
/ 신귀현 집사(여의도공동체)

온누리와 함께 90일의 기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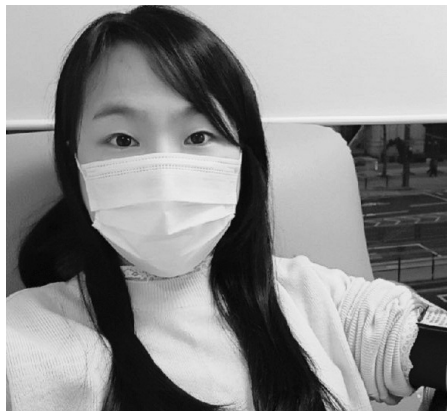
대한민국 ‘피(血)’ 로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

“이제야 생명의 빛을 갚습니다!”

김승욱 집사, 박유진 성도, 성하영 성도의 ‘보답헌혈’

온누리와 함께 ‘90일의 기적’이 이어지고 있다. 새벽기도회, 성경일독, 대한민국 ‘피(血)’ 로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이하 생명나눔의 기적)’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생명나눔의 기적은 교회와 성도들의 자발적인 동참으로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어 칭찬을 듬뿍 받고 있다. 교회의 사회적 역할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생명나눔의 기적은 혈액보유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도들의 헌혈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이다. 1월 4일부터 4월 3일까지 90일 동안 이어진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생명의 빛을 갚기 위해 생명나눔의 기적에 동참한 김승욱 집사(평택 온누리교회, 왼쪽), 박유진 성도(서빙고 온누리교회, 가운데), 성하영 성도(송파A공동체, 오른쪽).

생명나눔의 기적에 동참하는 성도들의 이야기가 날마다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과 SNS 계정(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업로드 되고 있다. 2월 25일 현재까지 652명의 성도들의 고백과 간증이 게시됐다. 100번이 훌쩍 넘게 헌혈을 한 성도, 몇 십 년 만에 헌혈의 집을 찾은 성도, 생애 처음 헌혈을 한 성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 지정헌혈을 한 성도, 가족 또는 공동체와 함께 헌혈을 한 성도 등 저마다 아름다운 사연들이 가득하다. 그 아름다운 고백 중에서 눈길을 더 끄는 사연이 있다. 누군가 헌혈해준 피로 도움을 받고, 그 생명의 빛을 갚기 위해 생명나눔의 기적에 동참한 성도들의 이야기다. 김승욱 집사(평택 온누리교회), 박유진 성도(서빙고 온누리교회), 성하영 성도(송파A공동체)가 그 주인공이다.

김승욱 집사는 어릴 적 받은 수혈을 보답하기 위해, 박유진 성도는 아픈 언니의 빛진 생명을 갚기 위해, 성하영 성도는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친구에게 헌혈해준 공동체 식구들에게 사랑의 빛을 갚기 위해 생명나눔의 기적에 동참했다.

김승욱 성도는 어릴 적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쳤다. 수술을 세 번이나 해야 했고, 수혈을 받아야 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다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수술을 세 번이나 받았는데 3~4명 정도 수혈을 받았습니다. 그때 수혈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됐고 언젠가는 나도 헌혈을 해야겠다는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빛진 마음을 잊고 살았다. 40년이 흐른 뒤에야 생명나눔의 기적을 통해서 그때 빛진 마음을 되새겼고, 갚을

기회가 생겼다.

“제가 빛진 마음을 40년 동안이나 잊고 살았더군요. 의료계에서 일하고 있으면서도, 헌혈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온누리교회 온 성도가 함께 헌혈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이 제가 어릴 적 받은 은혜를 갚을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40년 만에 헌혈로 빛을 갚은 김승욱 성도의 마음에 기쁨과 함께 선한 부담감이 생겼다.

“헌혈하고 나서 마음이 정말 뿌듯했습니다. 생명을 나눴다는 그 자체가 기쁨이더군요. 별거 아닌 일을 왜 이제껏 하지 못했을까 생각하면서 시간과 건강이 허락되면 헌혈을 더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진 생명의 빛을 헌혈 나눔으로 계속 갚아나가겠습니다.”

박유진 성도는 3년 전 친언니가 긴급수혈을 받게 되었다. 그때 헌혈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다.

“친언니가 원래 몸이 안 좋은데 어느 날 갑자기 얼굴빛이 창백해지고 토하는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오랫동안 바깥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어서 그런가 싶어서 산책을 하려고 했는데 상태가 계속 안 좋아졌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에 갔더니 몸 안에서 출혈이 생겨서 혈액소 수치도 3까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면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과 맞먹는 수치라고 했어요. 그때 언니가 긴급하게 수혈을 받은 덕분에 건강을 회복했어요. 수혈을 받지 못했으면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피를 나눠주신 이름 모를 많은 헌혈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한 마음이 헌혈을 해야겠다는 다짐

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그런데 생명나눔의 기적이 시작되고 그때 일이 생각났다. 망설임 없이 헌혈의 집으로 향했다.

“긴급수혈을 받고 언니가 회복되는 것을 봤는데도 헌혈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언니 병간호를 하면서 주사 바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거든요. 감사한 마음만 가지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생명나눔의 기적을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는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망설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헌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박유진 성도는 헌혈하면서 이제껏 헌혈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고 후회했다. 그리고 앞으로 헌혈에 열심히 동참하기로 결심했다.

“이 피가 없어서 누군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지금까지 헌혈하지 못했던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아주 잠깐의 고통만 참으면 누군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는 고통을 당하시고 그 많은 피를 흘리셨던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크게 와닿고요.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생명과 사랑을 나누는 헌혈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헌혈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성하영 성도는 2년 전 암 투병 끝에 천국에 간 친구와 친구의 투병 기간 동안 가족과 지인들을 총동원해서 도움을 줬던 공동체 식구들이 생각났다.

“생명나눔의 기적이 시작되고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하는 모습을 보면서 2년 전 헌혈로 도움을 주셨던 공동체 성도님들이 생각났습니다. 가족 같았던 가장 친한 친구가 위암 말

기로 투병 중이었는데 AB형 혈소판을 구하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공동체에 친구의 소식을 알리고 기도요청을 했는데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혈소판 헌혈은 임신력이 없는 여성이나 건강한 성인 남성만 할 수 있고, 전혈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헌혈자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연을 들으시고 바쁘신 와중에 예약하고 헌혈해주신 순장님도 계시고, 어떤 집사님은 아들이 AB형이라면서 아들에게 수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습니다.”

친구는 끝내 천국에 갔지만 성하영 성도는 그때 헌혈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알게 되었다.

“얼굴도 모르는 제 친구에게 피를 전해주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애써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친구가 치료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을 보면서 헌혈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혈액보유량이 한참 부족하다는 기사를 보면서 그때 친구가 어려움을 겪었던 일이 생각나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피가 꼭 필요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 제 친구에게 전해주셨던 성도님들의 그 마음과 사랑을 갚고 싶어서 생명나눔의 기적에 동참했습니다.”

성하영 성도가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생명나눔의 기적에 꼭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헌혈은 한두 번 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내 몸이 건강하다면 꼭 해야 하는 귀한 일입니다. 친구가 천국으로 일찍 떠나는 것을 보면서 생명을 주시는 이도,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라면 생명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많은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용기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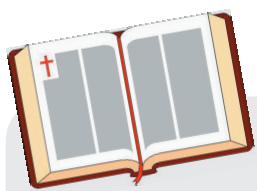
오늘의 혈액 정보

2021년 2월 26일 기준 / 단위: Unit

구분	1일 소요량	현재 혈액보유량	보유상태
합계	4,945	16,480	3.3일분
O형	1,399	3,594	2.6일분
A형	1,685	4,624	2.7일분
B형	1,311	6,071	4.6일분
AB형	550	2,191	4일분

* 적정혈액보유량은 일평균 5일분 이상입니다.

* 자료출처: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폴란드의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중심이며 지구가 움직이는 것이라고 주장했을 때 모든 사람이 그를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우주의 체계에 정면으로 도전했을 때 가톨릭교회는 그의 책을 금서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비로소 진실이 밝혀졌고 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20세기 과학철학자 토마스 쿤이 〈코페르니쿠스 혁명〉이라는 책에서 과학의 발전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순간적인 혁명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유명한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말이 오늘날까지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보이는 세상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중심을 바로 잡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우주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라고 굳게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생의 중심이 우리가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인생의 변화가 있음을 계시해 줍니다. 우리는 이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17절).

이 변화는 오랜 시간에 걸친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순간적이고 급격한 변화입니다. 마치 빛이 없었던 상황에서 “빛이 있으라”는 말씀하심으로 빛이 창조되어서 빛이 없던 시대와 빛이 존재한 이후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받아들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됩니다. 또한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것과 같은 변화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여인의 몸에 잉태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 같은 변화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며, 그분이 나를 대신해 죽으신 대속제물이심을 믿으면 나타나는 변화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인

생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삶의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순간적이고 급격한 변화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오랜 세월 노력하고 수행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여정이 시작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뜻합니다. 여러분, 성경 내용을 다 알아야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으로 모든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믿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빛과 생명을 창조하신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상태를 ‘옛것’이라고 표현했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상태를 ‘새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사람들이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사회경제적이나 인종적인 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구별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있는 사람과 죽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옛것과 새것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위대한 선언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코페르니쿠스를 미쳤다고 여기고, 그의 책을 금서로 지정한 것처럼 성경의 진리와 성도들의 고백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을 때 주변 사람들로 부터 “믿는 건 좋은데 광신자가 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상식과 현실을 무시하고 올바른 믿음이 아닌 지나친 샤머니즘적인 모습으로 나가는 잘못된 신앙을 경계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를 미친 것이라고 평가하는 내용도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임을 확신하고 살아간다면 누군가로부터 “혹시 너 미친 거 아니야?”라는 평가를 듣는 것을 오히려 당연한 일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해도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13절).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미쳤다고 비난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위대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완전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생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

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자신이 변화되었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옛것은 지나고 이제 새것이 되었다는 고백을 스스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도덕적으로 완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관점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임을 경험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야 한다고 고백하며, 그 새 생명이 때로 이 세상으로부터 오해받고, “미쳤다”는 말을 들어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영혼의 고백을 두 가지로 고백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우리가 확신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신 것은 산 사람들로 더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대신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14-15절).

‘강권하신다’는 표현이 핵심 단어입니다. 강권하신다는 ‘지배한다’는 의미도 있고, ‘압축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무엇 무엇을 하게 하다’는 의미도 있고, ‘붙잡고 사로잡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악의 영에 사로잡히고, 악의 영에 지배를 받고, 악의 영에 의하여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을 사로잡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행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을 지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랑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조절하고 있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 섬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하여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집중해서 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선을 행하지 못할까요? 왜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할까요? 옛사람과 옛성품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강권하심이 옛사람에 묶여 있던 우리를 구출해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선을 행하며 자유와 기쁨을 누리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 강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입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나를 대신한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한 죽음은 더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으니 곧 나를 대신해 죽으신 것이고, 나를 대신해 죽으신 것은 곧 내가 죽는 것이고, 내가 죽은 것은 나의 옛사람에 대하여 죽는 것이기 때문에 더이상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중심이 내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가 살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더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도록 하셨다는 것을 이 세상의 철학과 방식으로 보면 완전히 미친 소리입니다. 세상은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살게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든 세상이 존재하는데, 더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한다는 말씀을 따르겠습니까?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을 미친 사람 취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 사랑의 강권함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신 사랑이요, 나를 대신해 죽으신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은 것이고, 내가 죽었으므로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로 부터 의구심을 자아내는 인생이 새로운 피조물 된 인생입니다. 이것은 스스로의 결단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이 압박은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섬김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비밀을 잘 압니다. 사랑은 받은 만큼 줄 수 있습니다. 경험한 만큼 깨닫습니다. 사랑은 사랑 받는 자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과 동일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자를 대신해 죽으신 사랑의 강권함을 받은 사람은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셨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새로운 피조물 됨의 의미로 설명했습니다. **〈13면에 계속〉**

류현모 교수의 '세계관 묵상'



류현모 교수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기독교에서 교회란 복음을 통해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인 사람들의 집단을 말한다. 교회는 죄에 대한 회개와 구원에 대한 진리를 선포함으로써 개인과 사회를 하나님 앞으로 돌려놓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세상에 제시하는 참된 공동체의 모범을 보여 줄 의무가 있다. 성경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비유하며, 사랑과 존경의 공동체가 되기를 촉구한다. 이 공동체의 가장 기반이 되는 것이 가정이다. 가정은 그 자체로 교회여야 하며, 믿음의 가정들이 연합하여 지역교회를, 또 그 울타리를 넘어 전체 교회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임무를 맡았다. 교회는 국가 속에 존재하지만 국가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임무가 있으며, 가정과 교회는 안전하고 안정된 사회를 유지하려는 국가의 질서를 따라야 한다.

이슬람에서는 가정, 교회, 국가 같은 사회적 기관 사이에 구분이 없다. 가정이나 국가는 그들의 사원인 모스크만큼 종교적이어

야 한다. 이슬람은 종교이면서 정부이기도 하다. 이슬람이 복종을 의미하는 만큼 그들의 가정, 모스크, 국가 모두 권위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 가정에서는 가정의 가부장적 권위에, 모스크에서는 이슬람 율법을 해석해 주는 이맘의 권위에, 국가에서는 권력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무슬림들이 따라야 할 원칙이다. 이슬람은 신의 계시인 코란을 연구하는 것조차 신성모독으로 여기기 때문에 신학이 잘 발달할 수 없다. 제기되는 모든 의문은 지역 모스크에서 이맘의 해석으로 해결되며 반복적인 질문은 도전으로 간주된다.

무신론인 인본주의와 공산주의에서는 가정과 교회의 역할을 교실로 이전하고 있다. 공립학교의 교실은 무신론 신앙을 퍼뜨리기 위한 사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인본주의자들은 가르치는 것은 교실보다 훨씬 멀리까지 미치는 정치적 영향력이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존 던피는 〈휴머니스트〉라는 인본주의 잡지에 ‘새 시대를 위한 종교’라는 글을 통해 학교 선생님들을 일종의 성직자라고 묘사했다. 존 듀이는 그의 저서 〈A common faith〉에서 인본주의를 종교라고 보고 있다. 공립학교가 인본주의 교과과정을 채택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자신도 모르게 교실을 인본주의의 가치를 전달하는 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가정은 프롤레타리아들이 혁명에 나서는 것을 저해하는 기

관이다. 교회는 노동자들에게 혁명을 통한 사회개혁이라는 근본적인 치료 대신 통증만 달래주는 인민의 아편으로 타파되어야 할 구시대 기관으로 규정짓는다. 프롤레타리아혁명 전 가정과 교회는 자본주의의 악덕을 전수하는 장소였다. 그러나 혁명 이후 교실은 가정을 대신해 아이들을 양육하고 마르크스주의 철학을 주입해서 공산사회에 부합하는 노동자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전환된다. 그 교육의 내용은 무신론과 유물론적 과학이 될 것이며, 교실을 통해 기존의 부르주아 문화는 혁명적으로 삭제되고 새로운 문화로 교체될 것이다.

뉴에이지 역시 교실을 새 시대를 이루기 위한 전당이라고 보고 있다. 전 인류의 미래를 건 전투가 교실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승리는 새로운 신앙의 전도자로서 사명감을 정확히 자각하고 있는 선생님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마릴린 퍼거슨은 뉴에이지 전문직 종사자 중에서 교육자가 가장 많으며 그들이 뉴에이지를 이룰 새로운 세대를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립학교 교육에서 가치의 명료화나 도덕적 상대주의가 정착되어 가는 것을 보면 뉴에이지 교사들이 그 새로운 종교의 기반을 교육 속에 형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포스트모던은 전통적 교실에서 가르치던 주류의견만 강조할 것이 아니고 소외된 소수 즉, 유색인종, 여성, 성소수자, 가난한 자의 의견에 귀 기울일 것을 주장한다. 이런

특성은 대학 교육에서 더 두드러지는데, 학교에서 제공되는 과목들도 전통적 과목은 사라지고, 인종, 성별, 인권 같은 주제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소외된 소수에 대한 억압을 해소하는 것이 정의, 진리, 정치적 정당함이라고 가르친다. 이처럼 무신론의 신앙이 교실이라는 사원을 통해 전파되는 동안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다음 세대를 그들에게 내어주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육, 문화명령(창 1:28)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대도시의 비싼 주거비용으로 인해 젊은 부부들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맞벌이가 필수적일 수 있다. 부부가 같이 일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직면한다. 무신론적 이상주의(인본주의, 공산주의)에서는 그 일을 정부나 당이 맡아서 하겠다고 선전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영유아기는 각 개인의 세계관 선글라스에 바탕색이 칠해지는 시간이다. 기독교 가정의 부모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녀들에게 알릴 수 있는 이 독점적 기회를 헛되이 보낼 수 없다. 자녀 교육은 부모에게 맡겨진 가장 큰 의무이고, 그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셨다(신 6:4-9). 이 진리를 사랑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지역 교회와 각 가정의 형편에 따른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때다.

묵상: 교실이 무신론의 전당이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크리스천을 위한 성상담

부부 소통과 성적 친밀감

“저희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둘 다 야근이 많은 직업이라 평일에는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 나눌 시간조차 부족하고, 주말에는 평일에 쌓인 피로를 풀다보니 부부관계를 가지지 않은지 꽤 됐습니다. 어쩌다 분위기를 잡을까 싶으면 괜히 어색하고, 서로 암묵적으로 성관계를 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로 이상태가 편하고 불만이 없는 것 같지만 관계가 소원해지고 갈등이 생길까 겁이 나기도 합니다. 부부관계 없이 결혼생활을 이어가도 괜찮은지, 어떻게 하면 즐거운 부부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결혼하고 맞벌이 하면서 부부가 성적으로 소원해지는 것을 느꼈다면 부부관계의 ‘경고등’이 켜졌다고 봐도 좋다. 서로 바쁘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부부관계를 피하고 있는 것은 배려라기보다 회피일 수 있다. 경고등을 보았다면 그 다음 단계를 밟아 가면서 회복해야 한다. 무심히 넘긴다면 부부관계는 고장 난 엔진처럼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맞벌이를 하면 새로운 역할을 정립하는 과

정이 필요하다. ‘일-가정’, 혹은 ‘직장-결혼’이 양립할 수 있도록 삶의 스타일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직장과 가정에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관계가 가장 이상적이다. 직장에서의 성취감과 만족감이 가정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긍정성이 직장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순환 하는 관계라면 더 없이 좋다. 그러나 직장에서 만족보다는 불만 혹은 스트레스가 쌓이고 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깊은 스트레스가 있다면 가정에 부정적인 에너지가 전이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악순환이 되고, 부부관계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맞벌이로 인해 친밀감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서먹한 사이가 된다면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이 있는데 직장업무, 가사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의사소통, 성적 친밀감이 바로 그것이다. 성적 친밀감이 높을수록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높고, 성적 친밀감이 낮으면 부부의 결혼만족도

또한 낮아진다.

첫째, 부부의 성적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부부 소통’이다. 소통은 자신의 감정과 바람, 기대와 생각을 배우자와 서로 나누는 모든 과정이다. 상황을 눈치껏 피하기보다 대화를 시도해 보는 게 좋다. 성적인 대화가 불편하다면 일상적인 이야기로 시작해서 나중에 성적인 대화까지 해보자. 기억해야 할 것은 비난이나 부정적인 말투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다. ‘당신 때문에’라는 비난과 ‘우리 부부는 문제가 많아’라는 식의 부정적인 대화는 곤란하다.

둘째, 구체적으로 자신의 필요와 상대를 위한 양보할 것을 충분히 대화를 통해 합의를 만들어내서 실행까지 해보자. 부부가 성적 친밀감을 누리기에 좋은 시간과 상황에 대해 나누고, 그러기 위해 서로가 양보하고 도울 영역이 무엇인지 이야기 해보자. 컨디션이 좋은 시간과 상황을 구체화해서 실행해보자. 집도 좋지 않지만 가끔은 근교로 나가서 특별한 시간을 갖는 것도 좋다. 손을 잡고 산책하는 것과 함께 운동을 해보는 것도 좋다. 일상에서의 데이트가

친밀감을 증진시켜줄 것이다.

셋째, 성적 친밀감은 일상에서 서로를 향한 따뜻한 언어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과 가벼운 스킨십부터 시작됨을 기억하자. 침실로 가기까지 삶의 순간마다 서로에게 따뜻한 말과 부드러운 스킨십으로 마음을 열게 하자. “여보 고마워요”, “여보 오늘 수고했어”, “여보 사랑해요”와 같은 일상의 따뜻한 말이 마음을 열어준다. 가장 민감한 성감대가 뇌라는 것을 기억하자. 사랑의 따뜻한 언어가 지치고 힘든 우리의 마음과 몸을 열어줄 수 있다.

넷째, 성경에서 부부의 하나 됨에 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보자. 결혼은 부부의 하나 됨으로 즐거움을 경험하고, 친밀해지는 과정이다.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 예비학
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저자)

전문가 기고



이주호 팀장
(결혼예비학교
재정강사)

“빚투, 영끌, 주린이, 연끌...”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았을 신조어들이다. 빚투는 ‘빚내서 투자한다’, 영끌은 ‘영혼까지 끌어와서 대출 받는다’, 주린이는 ‘주식과 어린이의 합성어로 주

식초보자’, 연끌은 ‘연금 끌어와서 주식에 투자한다’는 뜻이다.

요즘 주식투자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여기저기서 주식해서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나만 세상의 흐름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포모증후군(Fear of Missing Out: 세상의 흐름에 자신만 제외되고 있다는 공포를 나타내는 말, 일종의 고립공포감)’이라 일컬어지는 심리적 공포심마저 든다.

주식예탁금(주식을 하기 위해서 증권사에 대기하고 있는 예비투자자금)이 무려 70조 원을 넘어서고, 개인이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돈을 빌리는 신용거래융자 잔액이 20조 원을 넘어서고 있다. 크리스천들은 주식 투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나는 이번 글을 통해서 크리스천들이 주식 투자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정립했으면 한다.

투자자와 투기의 차이

먼저, 주식투자가 좋다 또는 나쁘다를 논하기 전에 투자와 투기의 차이를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위렌 버핏의 스승이자 현대 투자 기법을 창시한 벤자민 그레이엄(Benjamin Graham)은 그의 저서 〈현명한 투자자〉에서 투자와 투기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투자는 철저한 분석 하에서 원금의 안전과 적절한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행위는 투기다.”

주식과 펀드 같은 원금 소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에 투자할 때는 투자 이전에 철저한 분석을 해야 한다. 위렌 버핏의 투자 원칙인 “절대 원금을 잃지 않는다”는 말처럼 원금의 안전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투자형 상품의 가입목적인 물가상승률 이상의 수익률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원칙들이 지켜진 상태에서 주식과 펀드를 산다고 하면 투자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투기이다. 주식과 펀드를 구입하기 전에 그 기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PER, PBR, ROE, EPR 등과 같은 기본재무분석, CEO의 경영 철학과 도덕성, 회사의 성장가능성 등), 상품에 대한 이해, 간접투자상품인 경우 펀드매니저에 대한 이력

까지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만약 이러한 분석 없이 투자를 했다면 수익이 나서 이익을 본 것과는 별개로 실패한 투자 즉, 투기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

투자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 사람의 마음이다. 심리적인 부분이다. 고객과의 재무상담 이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투자성향을 파악하는 일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원금손실에 대해서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이다. 원금은 절대 잃어서는 안 된다는 고객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원금손실을 어느 정도 감안하더라도 수익을

서 해야 한다. 작년 ‘동학개미’라 일컬어지는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빚투로 주식투자하는 규모가 커지면서 신용거래융자 잔액(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한 금액)이 20조 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빚내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하루빨리 대출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 조바심으로 단타매매를 할 수밖에 없다. 그뿐만 아니라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증권사들은 반대 매매를 통해 신용거래융자를 강제로 상환시켜버린다. 그렇게 되면 투자수

성 있는 기업에 ‘동업자 마인드’로 투자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가장 중요한 덕목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마지막 열매가 절제이다. 나는 단언컨대 주식과 펀드 등 금융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절제라고 생각한다. 항상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여유자금으로 10년 이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위에서 언급한 원칙들을 지키면서 투자를 한다면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정을 5달란트에서 10달란트로 만들며(이것이 꼭 모든 투자의 기대수익률을 100%로 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주인에게 칭찬받았던 종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투자로 얻은 수익과 배당소득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심일조와 감사헌금을 구별해서 드리기를 권한다. 그런 행위에 대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한다.

내가 철저한 분석으로 어느 기업의 주식을 꾸준히 매수함으로써 동반자로 같이 가기로 했다면 호재에 의해 주가 급등했다고 해서 들뜬 필요가 없고, 일시적인 악재에 의해서 주가가 떨어졌다고 절망할 필요 또한 없다.

공포와 탐욕을 이겨내고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욕심내지 않고 절제하는 자만이 주식투자로 목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믿는다. 끝으로 성공하는 주식 투자를 위한 5가지 계명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첫째, 절대적으로 주식 투자는 여유자금으로 해야 한다. 빚투, 영끌은 금지다.

둘째, 초심자의 행운으로 큰돈을 벌었다고 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투자자로 뛰어들지 말기를 바란다. 생활비를 벌어드려야 하는 압박감으로 인해 평정심을 유지하기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셋째, 주린이(주식초보자)들은 가급적 직접 투자인 주식보다는 펀드매니저들이 여러 주식에 투자해서 운용해주는 적립식 펀드나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ETF(상장지수펀드)를 통해 분산투자하기를 바란다.

넷째, 다른 사람이 어떤 주식을 산다고 편승 효과에 의해서 덩달아 사지 말기를 바란다. 자신이 잘 모르는 주식, 펀드 및 어떤 투자상품도 가입해서는 안 된다.

다섯째, ‘공포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라’ 등 단타매매용 주식어락을 믿지 말라. 누구도 매매 타이밍을 예측할 수 없고, 예측해서도 안 된다.

이 5가지 계명은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지키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공포와 탐욕을 이겨내고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욕심내지 않고, 절제하는 자만이 주식투자로 목표수익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건강한 주식 투자 위한 5가지 계명

첫째, 주식 투자는 **여유자금**으로 하라.

둘째, **전업투자자**로 뛰어들지 말라.

셋째, 초보자들은 **분산투자**를 해라.

넷째, 주식을 **덩달아 사지** 말라.

다섯째, **단타매매용** 주식어락을 믿지 말라.

원하는 고객이 있을 수 있다. 높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큰 수익을 희망하는 공격적 투자 성향을 지닌 고객도 있다. 이처럼 자신의 투자성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게끔 투자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저위험 저수익’을 원하는 고객은 당연히 채권편입비율이 높은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나을 것이고, ‘고위험 고수익’을 원하는 고객은 주식편입비율이 높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안정된다. 이런 원칙을 무시하고 탐욕에 이끌려 일확천금을 벌고자 하는 조급함으로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투자는 반드시 여유자금에

익은 고사하고 대출원금만 빚으로 남아 갚아야 할 처지가 된다.

심리학자 칼 융은 “조급함은 마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마귀”라는 유명한 말을 했다. 성경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잠 21:5).

조급함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경고하고 있다. 주식 투자는 은퇴자금을 포함한 먼 미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1년 안에, 한 달 안에, 심지어 단 하루 만에 수익을 얻으면 팔아버리겠다는 도박이 아니다. 10년, 20년, 30년 먼 미래를 위해 장래




 코로나19, '이웃사랑'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온누리복지재단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은 코로나19 시대에 발맞춰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중에서 어르신들의 영양과 끼니를 책임지는 급식사업과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이 매우 중요하다.

코로나19로 복지관 출입이 제한되면서 모든 사회복지사들이 조별로 무료급식 대상자들에게 밀반찬을 배달하고 있다. 대상자관리(서초구 내 취약계층 어르신 안부 확인, 정서, 건강, 생활 지원, 결연, 후원 등 담당) 업무를 담당하던 나도 밀반찬을 배달하면서 어르신들을 뵈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어르신들의 건강이 부쩍 안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매일 식사하러 복지관에 오는 게 운동이고 일상이었는데 그마저 못하게 되면서 답답해 하시고 힘들어하셨다. “눈도 오고 비도 오는 데 고생하는 복지사들에게 미안하다”, “운동 삼아 복지관으로 직접 받으러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께 도움을 드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는 환경이 야속하기만 하다. 사회복지사들은 조금 힘들더라도 어르신들을 한 분 한 분 뵈고 인사 드릴 수 있어서 좋았다.

지난달 사고를 당하신 어르신은 독거노인이다. 밀반찬 배달 서비스 대상자인데 난청이 심해서 전화로는 의사소통이 어렵다. 그래서 밀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밀반찬을 배달하고 있다.

반찬 배달을 나가서 어르신의 안부와 건강상태를 확인하곤 했다. 지난 1월 13일 그 어르신 댁에 밀반찬 배달을 갔다. 그런데 인기가 없어서 옆집 어르신께 밀반찬을 꼭 좀 전해달라고 부탁하고 돌아왔는데 마음이 개운하지 않았다. 반찬을 잘 받으셨는지 어르신께 전화를 드렸는데 통화가 안 됐다. 옆집 어르신께 다시 전화를 드렸는데 깜빡했다면서 다시 전달해

주시겠다고 했다. 걱정되는 마음에 다시 그 어르신 댁을 찾았다. 난청이 심하긴 해도 문을 두드리면 반응이 있는데 그날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집에 계시면 TV 볼륨을 크게 틀어놓기 때문에 TV소리라도 들리곤 하는데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이웃들께 그 어르신을 뵈게 있다고 여쭙보고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CCTV 열람을 요청했다. 경찰서와 주민

센터에 협력을 요청해 경찰과 옆집 창문을 넘어서 집 내부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잘 보이지 않아서 마음이 타 들어갔다. CCTV를 확인해봤더니 그날 새벽부터 사회복지사들이 어르신 댁에 도착할 때까지 집을 나선 흔적이 없었다. 경찰의 협조를 얻어 문을 강제로 개방했더니 어르신이 쓰러져 계셨다. 전화 수화기가 들려있는 상태였고 용변을 흘리고 계셨다.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외관상으로는 사망한 것처럼 보였지만 다행히 호흡을 이어가고 계셨다. 듣기로는 당뇨로 인한 고혈당 쇼크였다고 한다. 조금만 늦었거나 우리가 방문하지 않았으면 어르신이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지금 어르신은 병원에서 회복 중이다. 하지만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이어나가기 어려울 것 같다. 가족이 없어서 요양병원에 입소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로 인해 깨닫는 것이 있다. 가족과 이웃 중에 어르신이 있다면 반드시 꾸준히 안부를 확인해야 한다. 대면이 어렵다면 전화기나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부를 더 자주 그리고 촘촘하게 해야 한다.

/ 김은선 사회복지사(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코로나19, '양육'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일대일 제자양육

추운 겨울과 따뜻한 봄의 경계선을 오락가락했던 어느 날 일대일 제자양육이 시작되었다. 양육자님께서 삶의 많은 부분을 나눠 주셨고, 준비한 순서에 따라 적절한 질문으로 대답을 유도하시며 차분히 양육을 해주셨다. 사실 나는 누군가와 나눔이 절실하게 필요했다. 양육자님의 맞춤형 인도에 따라 서서히 마음을 열었다. 여기저기 흩어져있던 성경 지식들을 한 조각씩 주위 담으면서 마음속 밑 빠진 독을 채우는 시간이었다. 특히 어떤 주제에 맞춰 그 근거가 되는 다양한 성경 구절을 마주하며 마음에 평안을 얻고 결단을 경험했던 그 순간을 잊지 못한다. 특히 양육자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진정한 관심과 기도가 정말 좋았다.

은혜와 감사로 충만했던 일대일 제자양육을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 직장 발령으로 양육자님과 대면해서 양육할 수 없는 강원도 양양으로 이사를 했다. 더불어 코로나19라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다시 시작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합리화하고, 그동안 받았던 은혜를 교재에 고이고이 담아서 좋은 추억으로 삼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을



박상철 형제(요셉공동체)가 온라인 일대일 제자양육을 하고 있다.

강하게 부여주셨다. 강원도 양양과 서울이라는 원거리의 상황에 굴복하지 말고, 언택트 시대를 활용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때마침 줌(Zoom)과 유튜브로 여러 가지 모임이 활성화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줌으로 일대일 제자양육을 다시 시작하라는 권면의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은 나와 끊임없이 연결되기를

원하셨다. 그렇게 온라인 일대일 제자양육이 재개되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다시 시작한 온라인 일대일 제자양육은 결단이라는 토양 위에 더욱 거대한 은혜가 있었다.

다시 시작한 온라인 일대일 제자양육은 대면으로 진행했던 일대일 제자양육 만큼이나 따뜻하고 뜨거웠다. 화상을 통해서도 충분한

은혜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다. 물론 같은 온도를 공유하고, 대면 일대일 제자양육 만큼의 생동감과 몰입감은 부족했지만,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없이 연결될 수 있는 온라인 일대일 제자양육만의 장점을 만끽할 수 있었다. 온라인 일대일 제자양육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삶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연료를 공급해주었다.

서울 생활에 익숙했던 나는 강원도 양양이라는 생경한 환경에서 치열하게 적응하며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매일 치열한 전쟁 같았고, 온누리교회와 요셉청년부를 늘 사모하며 조금은 무기력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바로 그때 서울과 양양을 잇는 은혜의 선로 위에서 시작된 온라인 일대일 제자양육이 어려운 현실을 믿음으로 이기는 힘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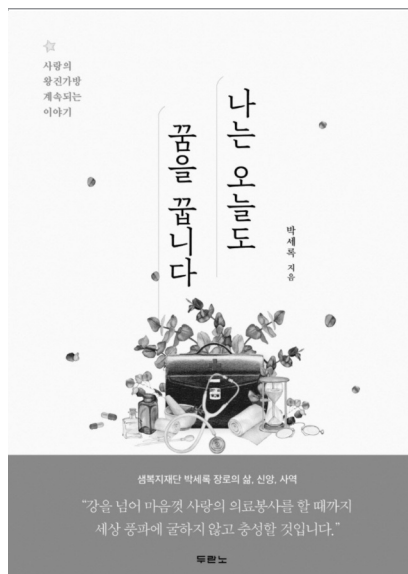
하나님은 우리와 끊임없이 연결되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과 내가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일대일 제자양육 양육자반 수강신청 버튼을 클릭할 생각이다. 우리 모두 계속 소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 박상철 형제(요셉청년부)

장소와 공간을 뛰어넘는 은혜

두란노 신간

“꿈을 품으니 또 이루어 주셨습니다”



〈나는 오늘도 꿈을 품습니다〉
박세록 저 | 두란노 | 15,000원

고백과 찬양이 가득하다. 저자는 “꿈을 품으니 또 이루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30년 동안 사역을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앞으로의 비전인 평양제3병원 활성화 프로젝트를 위한 소망과 계획도 담았다. 꿈을 품기만 하면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묻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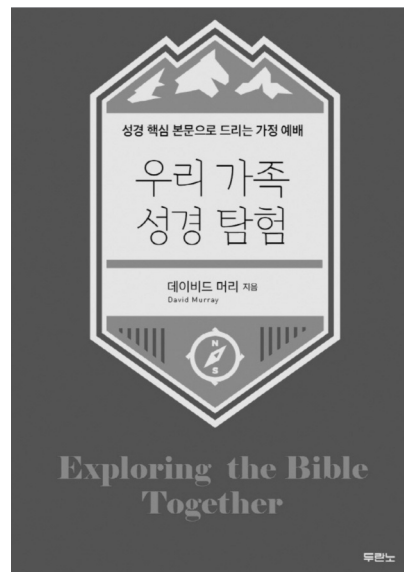
사명을 따라 30년 한 길을 걸어온 저자의 간증과 샘복지재단의 사역 이야기가 독자들로 하여금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 또한 “마음껏 사랑의 의료봉사를 할 때까지 세상 풍파에 굴하지 않고 충성할 것”이라는 저자의 고백은 독자들에게 믿음의 격려와 용기를 선물한다.

30년 넘는 세월 동안 북한의료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기독교 NGO단체 샘복지재단의 박세록 장로의 신간이 나왔다. 책 〈나는 오늘도 꿈을 품습니다〉는 〈사랑의 왕진가방〉, 〈생명을 살리는 왕진버스〉 이후 10년 동안 확대된 샘복지재단의 사역 이야기와 그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담았다.

저자는 복음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따라 30년 동안 평양제3병원과 단동병원을 운영하며 북한 동포들의 육체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을 살렸다.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시골 진료소와 보육원 등에 영양제와 영양식품을 보급해왔다. 의료사역을 통해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해왔다.

이 책에는 저자의 삶과 사역을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자녀들과 매일 예수님 탐험하는 여행!



〈우리 가족 성경 탐험〉
데이비드 머리 저 | 두란노 | 22,000원

는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우리 가족 성경 탐험〉에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사의 주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예수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법을 익히고, 세상을 분별하는 가치관이 생기도록 노력한다. 이 책 한 권 읽는 것만으로도 구약사적 관점에서 성경 전체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이 책에서는 하루씩 52번의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량을 제시하고 있다. 그날의 성경 본문 읽기, 본문과 관련한 두 가지 질문 묻고 답하기, 꼭 기억해야 할 그날의 메시지 읽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렵기만 했던 가정예배, 이 책과 함께라면 자녀들과 매주 친구약 탐험을 할 수 있다. 예수님을 탐험하는 신나는 여행을 즐길 수 있다!

가정예배는 자녀를 키우는 크리스천 부모들의 로망이다. 실제 많은 가정이 가정예배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지만 가정예배를 꾸준히 잘 드리는 가정이 많지 않다. 이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크리스천 가정을 위한 가이드북이 나왔다. 〈우리 가족 성경 탐험〉이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가정예배가 왜 작심삼일이 되기 일쑤일까? 보통 목표를 너무 높이 설정해서 문제가 된다. 준비와 실행에 시간과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게 되기 때문이다. 가정예배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된다. 또한 일관된 계획이 없으면 목표를 잃기 쉽다. 성경을 읽기만 하고 묵상한 내용이나 해석, 적용 사항을 서로 나누지 않아서 가정예배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우리 가족 성경 탐험〉은 이와 같은 문제를 보완하고, 자녀들과 함께 즐겁고 재미있

동방기독교 역사

복음의 본질과 비본질

나는 우즈베키스탄 국립대학에서 우즈베키스탄의 역사를 우즈베크어로 공부했다. 학교에서 역사를 공부하던 중에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우즈베키스탄의 국사책 130페이지에 중앙아시아 땅에 기독교인들이 살았었다는 내용이 실려 있었다. 오래전부터 이슬람 땅이었던 중앙아시아에 기독교인들이 살았다는 기록이 나의 관심을 자극했다. 또한 사도행전 2장을 읽다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체험을 했던 바대, 베대, 엘림 등이 중앙아시아와 관련 있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다. 그날 이후 나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체험을 했던 이들이 중앙아시아의 기독교인들과 연결점이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몇 년 뒤 서울대학교 김호동 교수님을 알게 되었다. 김호동 교수님의 저서 〈동방교회와 동서문명〉이라는 책을 읽고 무릎을 쳤다. 중앙아시아 기독교 역사가 오래되었고, 초대교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당시 나는 도마가 인도에서 최초의 아시아 교회를 시작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도마에 대해 배우거나 그와 관련된 설교를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 교회에서 도마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다. 그래서 도마에 대해 잘 모르니 아시아 교회를 모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역사 속에서 누군가에 의해 ‘의심 많은 도마’라는 프레임이 씌워져서 이단으로 몰렸던 것은 아니었는지 궁금하기도 했다.

영지주의 문서로 금서가 되었던 〈도마행전〉에 대한 연구를 한 일레인 패이절스(프린스턴 대학 종교학) 교수는 자신의 연구에서 “도마는 예수님을 신과 인간으로 인정하고 고백했던 제자였다”고 말했다. 비록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지만 이내 예수님을 신과 인간으로 인정하고 고백했던 도마야말로 진정한 제자요, 진정한 사도가 아니었나 생각해본다.

안디옥 학파(동방기독교)와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예수님의 한 면(신성, 인성)만 강조해서 소모전을 벌였다. 두 학파는 왜 이 문제를 직면하고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했을까? 왜 복음이라는 본질을 가지고 협력하지 못하고 본질이 아닌 문제로 교회끼리 목숨 걸고 싸웠을까?

오늘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안디옥 학파

와 알렉산드리아의 학파의 모습이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금의 사회는 내가 보고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하는 세상이다. 약한 사람의 의견과 생각은 무시된다. 한국 교회와 선교지에서도 내가 살기 위해, 내가 인정받기 위해 약한 사람을 이겨야만 하는 모습이 전혀 낯설지 않다. 교회 속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이 보이는데 세상에서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떨까?

지금은 한국 교회가 세상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지를 고민하면서 성도들이 말씀에 머리를 숙여야 할 때인 것 같다. 세상에 사랑을 실천할 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나 자신도 사랑을 실천하기보다는 종교생활을 하는 것 같아 고민이다.

존경하는 중앙아시아의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한다.

“아시아 선교전략은 아시아 교회사를 보고 배워야지 왜 유럽 교회사를 보고 따라하는가?”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실천하고 있을까? 아니면 비본질을 쫓고 있을까?

/ 최명현 선교사(화성M센터)

이원로 장로가 들려주는 시

‘천상의 미소’

영롱한 아침 해로 뿌려 주는
하늘의 기쁨을 한 아름 안고
우아한 눈길 어디를 바라보나

끔찍한 밤의 아픔을 털고
날아오르는 날개의 활갯짓
천상의 미소는 누가 피우나

무슨 옷을 입어야 어울릴 건가
어떤 춤을 추어야 제격일 건가
어떻게 노래 불러 보답하려나

눈물짓나 거기에 침몰 않지
탄식하나 거기에 결박 안 되지
이기나 거기에 취하지 않지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라’

목회사관학교 종료 ... 온누리교회 목회자 430명 참석



2021년 목회사관학교가 지난 1월 19일~2월 23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2021년 목회사관학교가 종료됐다. 올해 목회사관학교는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라’를 주제로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23일까지 6주 동안 온라인(Zoom)으로 진행됐다. 온누리교회 목회자 430명(전임 168명, 파트 262명)이 참석했다.

올해 목회사관학교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목회’ 이재훈 담임목사, ‘새들백교회 온라인 캠퍼스’ 케빈 목사, ‘포스트 코로나

시대 목회자 영상’ R. T. 켄달 목사, ‘코로나 시대의 목양’ 패널토의(이재훈, 이인호, 유기성 목사), ‘미래사회 변화와 대처’ 김경훈(구글코리아 사장), ‘선교적 영성’ 박예벤 선교사가 강의했다.

김태완 목사(아부다비 온누리교회)는 “비대면이라는 시대 변화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할지 고민하는 귀한 배움의 시간이었다”고 했고, 정장철 목사(산타모니카 온누

리교회)는 “뉴노멀 시대 목회자에게 필요한 역량과 관심 분야에 대해 분야별로 배우는 기회였다”고 참가소감을 밝혔다. 이영선 목사(오사카 온누리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에서 모이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온라인으로 전 세계에서 사역하는 온누리교회 목회자들과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큰 도전과 은혜를 받았다”고 말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남수단 캐세리 마을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

NGO 더멋진세상 우물, 보건소, 코로나19 긴급구호

남수단은 40여 년 동안 이어진 내전으로 매우 불안정한 지역이다. 지난해 2월 22일 2차 연합정부가 세워지면서 내전은 종식됐지만 아직 그 상처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오랜 내전에 이어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더 힘든 시간을 보낸 남수단 캐세리 마을이 NGO 더멋진세상의 섬김 덕분에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

NGO 더멋진세상은 남수단 내전이 종식된 지난해 150가구 주민 1천 5백여 명이 생활하고 있는 남수단 캐세리 마을에서 섬김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우물, 보건소 건축, 코로나 19 긴급구호 등을 통해 주민들의 필

요를 채워주고 있다.

캐세리 마을 주장은 “NGO 더멋진세상의 도움 덕분에 마을 주민들의 삶이 훨씬 나아졌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NGO 더멋진세상과 남수단 캐세리 마을에서 협력사역하고 있는 캐세리 장로교회도 함께 부흥하고 있다.

아와디아 목사(캐세리 장로교회)는 “NGO 더멋진세상의 섬김 덕분에 캐세리 마을이 기독교 공동체로 세워질 것”이라며 “더 많은 성도들을 품고 섬길 수 있는 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 후원문의: 02-2271-2246

/ 김영선 기자

두란노어머니학교 114기 참가자 모집

두란노어머니학교 본부 114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5주 동안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온라인(Zoom, 유튜브)으로 진행된다. 어머니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두란노어머니학교 본부 114기에서는 성경적 여성상의 회복, 아내의 사명, 기도하는 어머니, 십자가와 사명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좋은 어머니가 되어 가정을 회복시키고, 교회에 덕을 세우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여성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회비는 10만 원(교재, 물품 포함)이다. 개척교회와 농어촌미자립교회 사모에게는 교육비 전액을 지원한다(본부 114기 한함).

문의: 02-2182-9110

‘부활 새롭게 읽기’, ‘헤아려 본 기쁨’

두란노바이블칼리지 온라인 세미나 개강

예수님의 빈 무덤 사건에 대한 성경신학적 조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깊고 풍성한 의미를 새롭게 살펴보는 ‘부활 새롭게 읽기’ 강의가 3월 9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으로 개강한다. 권해생 교수(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신약학)가 강의한다. 회비는 3만 원이다. 3월 2일까지 등록하면 회비를 1만 원 할인해준다. 문의: 02-2078-3264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와 함께 풀어보는 ‘헤아려 본 기쁨’ 세미나

가 3월 15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다. 기쁨이라는 본질적 경험을 이해하고 삶과 생각에 변화를 체험하도록 돕는 과정이다. 필라델피아 기쁨의 교회 박성일 목사가 강의한다. 회비는 3만 원이다. 3월 8일까지 신청하면 회비를 1만 원 할인해준다.

두란노바이블칼리지 온라인 강의는 홈페이지(www.duranno.com/biblecollege)에서 주차별 동영상 게시 일로부터 2주 동안 수강할 수 있다. 문의: 02-2078-3456

두란노서점 서빙고점 할인 이벤트

생명나눔의 기적 참가, ‘풍당’ 앱 다운하면 10% 할인

두란노서점 서빙고점에서 온누리교회 성도들을 위한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대한민국 ‘피(血)’ 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 캠페인(이하 생명나눔의 기적)에 참가한 성도들과 CGNTV가 출시한 기독교 OTT 플랫폼 ‘풍당(Fondant)’(이하 풍당) 앱을 다운로드 받은 성도들에게 구입한 제품의 가격 10%를 할인해준다(일부 품목 제외). 할인을 적용 받으려면 현혈증이나 현혈 인증 사진을 제시하거나 핸드폰에 설치된 풍당 앱을 직원에게 보여주면 된다.

두란노서점 서빙고점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성도들은 전화(02-796-2310)나 문자메시지(010-322 9-2310), 온라인(www.duranno.com/store/onnuri)으로 제품을 주문할 수 있다. 할인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생명나눔의 기적 할인 이벤트는 4월 3일까지, 풍당 할인 이벤트는 3월 한 달 동안 이어진다. 문의: 02-796-2310

온누리 상담센터, 비대면 상담실 운영

줌(Zoom) 또는 전화상담, 구글폼으로 상담 신청

온누리 상담센터에서 비대면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비대면 상담 서비스는 온라인(Zoom) 또는 전화로 진행된다. 비대면 상담 신청은 아래의 QR 코드로 접속해서 구글폼으로 상담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상담신청서에는 이름, 성별, 전화번호, 비상연락처, 이메일 주소, 상담

경험, 원하는 상담 주제, 가능 요일, 방법(전화 또는 화상) 등을 꼭 기입해야 한다.

문의: 02-793-2997(서빙고)

02-570-7536(양재)



/ 홍하영 기자

온라인 온비아 기초과정 수강생 모집

월 오전/저녁, 목 저녁, 토 오전, 일 저녁반

온라인 온비아 기초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온비아 기초과정은 1년 동안 ‘갈라디아서’, ‘로마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세 과목을 배우는 과정이다.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필수과목으로 2학점을 부여한다.

온비아 기초과정은 월요일 오전 반 3월 8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저녁반 3월 8일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 8시, 목요일 저녁반 3월 11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토

요일 오전반 3월 6일부터 매주 오전 10시, 일요일 저녁반 3월 7일부터 매주 저녁 8시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반별로 개강 이후 6일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반별로 2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수강료는 세 과목을 합해서 11만 5천 원이다(교재 발송비 4천 원 별도).

문의: 02-822-9480

2월 세례자

■서빙고	김예성 191119	이도준 191231	허예성 181010	김학찬 김지선	임남섭 민보라	입교
이지은 810822	김충환 김아름	이성훈 김민정	허 규 박승혜	김재이 191031	정이준 181017	최현석 880411
임광수 760930	김하임 190509	이예나 190202		김성우 김주미	정병훈 김연아	
	김득신 김시연	이진호 강영주	■양재	박하민 180717	최노엘 191109	유아
입교	손 권 180908	이예안 190723	공국주 910116	박준홍 윤명랑	최원종 권영진	전하영 180728
남혜림 020306	손영환 김영진	이단열 김정아	이상립 600427	송하민 190619	최혜원 191216	김연주
	손다나엘 190609	이태오 190302	정봉근 590303	송진우 김혜경	최재훈 김윤진	전하승 191104
유아	손유다윤드브라	이준기 김수진		양하성 190528	황무하민 190608	김연주
공예담 180814	양성훈 200328	임유나 200421	유아	양정우 오정은	황슬기잔박고은	윤지민 200102
공승현 심은진	양웅모 이윤정	임광수 천새봄	김나현 181018	윤루희 200518	황예은 180628	윤강진 홍수정
권하준 181227	유하은 190816	전준하 190108	김진수 최수진	윤상철 조성아	황혜환 윤은남	윤하리 200116
권준우 최지윤	유기성 이보람	전용우 오정원	김사랑 190119	임라온 200318		강수정
김예나 181101	이다운 190114	조라엘 181105	김동규 권민정	임 먼 윤세영		김태은 200622
김충환 김아름	이현영 오은미	조우진 한정옥	김예지 200203	임하론 190226	■대청	김효정 김효선
					■SNS	

어느 선교사의 순교 묵상



큰 상급과 복을 받은 가문

/ 박보철 선교사(남아시아국)

주님을 위해 멸문지화를 당했으나 하나님께 큰 상급과 복을 받은 가문이 있다. 큰 복이란 바로 한 가문에서 3대에 걸쳐 순교자를 배출한 것을 말한다.

김익두 목사는 1910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 황해도 신천교회에 시무하면서 부흥회를 통해 약 288만 명에게 복음을 선포했다. 1945년 해방을 맞이한 이듬해 다시 신천서부교회에 부임할 무렵 그의 나이 73세였다. 북한 기독교계에서 그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다. 그해 어느 날 북한의 새 지도자가 된 김일성의 외삼촌 강양육이 조선그리스도교연맹 결성의 취지를 설명하며 연맹의 위원장을 맡아 줄 것을 간청했다. 쫓지에 위원장에 취임해서 북한 정권에 부역하게 된 것이 그의 인생 최대 과오가 되고 말았다. 6.25전쟁이 발발하고 김익두 목사는 청년들과 봉기를 준비했다. 무기를 실은 인민군 트럭을 탈취해 무기를 확보한 교회 청년들이 봉기를 시작하자 김익두 목사는 새벽종을 울려 교인들을 모아 설교를 시작했다. 청년들의 봉기가 실패했고 김익두 목사가 “공산주의는 비단 보자기에 싸인 똥이다”라고 설교할 때 인민군이 들이닥쳤다. 그날

예배당에서 네 명의 교인이 김익두 목사와 함께 순교했다. 공산 정권이 회복된 이후 대대적인 숙청이 벌어지면서 김익두 목사의 장남 부부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고, 손자 김광수는 고아원으로 보내졌다. 김광수는 살면서 입 밖으로 할아버지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절대 꺼내지 않았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다. 김광수는 1991년 중국으로 탈북했고 가족들과 연락이 끊겼다. 후일 탈북한 김광수의 부인 박씨는 교회에서 남편의 소식과 남편이 김익두 목사의 손자라는 사실을 듣게 된다. 김광수는 탈북 후 중국에서 선교 훈련을 받다 북송돼 보위부 감옥에 들어가 있었다.

두 아들이 면회를 갔을 때 김광수는 장남에게 “가족들 모두 예수님을 믿어라”고 전했다. 김광수가 옥사한 후 어느 날 두 사람이 가족들을 찾아왔다. 그들은 김광수가 감옥에서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며 예수님을 잘 믿으라는 그의 유언을 전했다. 김광수의 부인 박 씨는 탈북했다가 북송돼 고문을 받았고 그 후 다시 가족들과 탈북해 2010년 남한에 정착했다. 그녀는 목회자가 되어 시할아버지와 남편의 순교에 대해 증언하며 살고 있다.

가스펠 프로젝트 참가자 소감



/ 강선혜 성도(동대문중앙공동체)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2 비유와 기적(이하 가스펠 프로젝트)을 들었던 지난 13주 동안의 시간은 매주, 매일이 은혜였다. 이 짧은 간증에 그 뜨거웠던 시간을 다 담아낼 수 없어서 안타깝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기적행전을 만나는 시간이었다. 처음 접한 사복음서 속 예수님의 기적은 내게 확고한 믿음의 뿌리가 되었다. 놀랍고 기이한 기적을 베푸셔서 나를 믿음의 자녀로 세워주셨다.

말씀 그대로를 붙잡고 살았던 내게 신원석 목사님의 강의는 너무 큰 은혜였다. 새롭고 깊고 오묘한 말씀의 바다였다. 목사님의 간절하고 갈급한 강의와 기도는 제자들과 군중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내 심령을 먹먹하게 했다.

강의를 듣는 내내 나는 혈류병을 앓는 여인이었다. 좌악과 수치심으로 몸부림치던 나는 매일 군중 속에 묻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뻗는 여인이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날마다 말씀 앞에 은혜로 앉으면서도 날마다 자유하지 못했음을 고백한다.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간신히 붙잡으며 나와 이 가정에 역사하시는 그분을 다시

만난다. 주의 옷자락을 잡고 씻음 받은 여인처럼 간절히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뻗는다. 내 죄와 부정함을 주의 정결로 덮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자유하라”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내게 오신 예수님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린다.

내게 허락된 인생과 앞을 보지 못하게 된 연세 많으신 어머니, 아직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기적을 베푸실 예수님을 찬양한다. 그 여인에게 행하셨던 기적이 내게도 일어나기를 소망한다.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간절함과 기다리심에 감사드린다.

나와 잠잠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이 이토록 바쁘셨음을 깨닫는다. 나로 하여금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내 떨리는 두 손을 꼭 잡아주시기를 기도한다. 매 순간 죽음의 문 앞에서 있는 우리의 인생을 올려드린다. 이미 죽음의 권세를 꺾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오늘도 부활의 인생임을 선포한다. 이 모든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려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린다.

대청 바이블아카데미 수료 간증



/ 김성천 형제(CH PLUS청년부)

“내가 함께하니 안심하라”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2020년이 저물었다. 2019년 연말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며 준비했던 계획이 대부분 취소되었다. 한 해를 잘 보내고 맞게 될 연말을 기다렸던 기대도 속절없이 무너져버렸다. 전 세계적으로 생존이 최우선의 목적이 되어가고 있고, 그 모습에 익숙해지고 있는 씁쓸한 현실이다. 모두 각자의 힘들을 버텨내고 있을 때 곁에서 힘이 되어주신 교회와 공동체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0년 2학기 바이블아카데미 참가자를 모집할 때 나는 학업도, 생활도 계획대로 되지 않는 데에서 비롯된 무기력함과 좌절감이 가득한 상태였다. 예수님께서 해결해주실 거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지만, 당장 다음 주에 교회에 갈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였다. 기대보다 막막한 마음으로 바이블아카데미를 신청했던 기억이 난다.

나는 바이블아카데미 강의 중에서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2: 비유와 기적’ 강의를 수강했다. 13번의 비유와 기적의 기록을 통해 살펴본 예수님은 가르치고, 격려하시며 일으키

시고, 먹이시고, 치료하셨다. 때로는 야단치기도 하셨고, 위로하기도 하셨다. 무엇보다 무리의 아픔을 공감하셨다. 예수님의 기적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기적임과 동시에 건네진 하늘의 위로였다. 예수님 기적의 목적이 공감하는 마음에 있다는 것이 큰 힘이 되었다. 나의 상황과 마음을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이 격려가 되었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람들의 고백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13주 동안 주신 메시지는 언제나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으며,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이다. 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고백을 하고 싶다. 올해도 파도치는 밤바다 위의 작은 배와 같은 상황이다. 그렇지만 어두운 밤바다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파도 위를 걸어 나를 향해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경험을 하기를 원한다. “내가 함께하니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 흔들리는 배에서도 평안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

창조신앙스쿨 수료 간증



/ 안정아 성도(양재공동체)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심

창조신앙스쿨을 처음 수강할 때 어려운 과학 분야이기에 낯설기만 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수업이 점점 재밌어졌다.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주시는 강사님들의 강의 덕분에 매시간이 기다려지기까지 했다. 또 하나님의 창조질서의 세계가 내 눈으로 직접 보는 것처럼 선명해졌다.

지구와 우주에 관한 강의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지구와 우주에 대해 인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은하계를 만들지 마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만 만드세요’라는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강의를 들으면서 은하계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인간에게 드러내시고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심을 온전히 헤아릴 수는 없지만 이 세상을 지으시고 “참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이 세상에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음을 고백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만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심을 우리는

정녕 깨닫지 못한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까지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기에는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 이 땅에 남겨 놓으신 여러 흔적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이 세상에 남겨진 흔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흔적이 드러나고 있어서 감사하다. 내게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흔적이 남아서 내 삶의 모든 순간에 적용되기를 기대한다. 이 세상에 남겨진 하나님의 흔적들처럼 나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흔적이 되고 싶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창조과학스쿨을 통하여 주의 다스림을 보게 하시고, 깨닫도록 이끌어주신 리더십과 스테프들께 감사하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가 넘치고, 가정마다 크신 축복을 더 해주시기를 기도한다.

신앙에세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만남



최종현 전도사
(SNS청년부)

코로나19 시대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아이러니하게도 거리 없이 타인과 교제하고 싶은 우리의 욕구를 방증한다. 서로 마주하고 싶은 열망이 내재하고 있기에 거리를 뒤흔다는 정책이 우리에게 당연한 듯 다가왔다. 타인과의 만남, 그것은 삶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우리는 타인과의 유대 속에서 자연스레 각종 교육, 의료, 문화 등의 서비스를 누리고 있다. 어느 누구도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감정을 긍정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상처는 누구나 아프듯이 외로워서 행복한 사람은 없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만남을 꿈꾼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삶과 마음을 나누는 교제를 소망한다. 우리의 만남은 세상에서의 만남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함께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인간의 욕구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 나는 세 가지를 말하고 싶다.

첫째, 우리의 만남은 타인에게서 예수님을 찾는 만남이다. 예수님은 불의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 내면에서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낯설고도 생소한 의의 옷, 그것은 외부로부터 전해져왔다. 하나님의 말씀은 밖에서 안으로 향한다. 그 방향으로 말씀은 다른 이

것이다. 오직 타인에게서 발견될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다.

둘째, 우리의 만남은 예수님을 통한 만남이다. 독일 신학자 바르트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 위에 있다”고 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한한 질적 차이가 존재함을 이야기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으며, 만날 수도 없지만 예수님을

셋째, 우리의 만남은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 되는 만남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함께 하는 하나이다. 한 번을 교제하든지, 평생을 만나오든지 그 만남의 깊이와는 관계 없이 우리는 영원히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이다. 불편한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며 속으로 ‘곧 헤어질 테니까’라고 생각하며 견디면 되는 관계가 아니다. 예수님은 흠어진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려고 죽으셨다(요 11:52). 이 사실만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만남이 명확해진다.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이 동상이몽(同床異夢)이라면 이보다 슬픈 믿음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은 코로나19를 통해 우리를 일으켰다. 지금이 기회다. 바벨탑을 쌓는 왜곡된 하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인한 거룩한 하나를 꿈꿀 때다. 나를 위해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서로를 사랑할 때다. 이것은 불가능한 유토피아가 아니다. 소망의 복음이 있기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영적 현실이다. 타인에게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통해 타인에게 다가가며, 결국 예수님으로 인해 타인과 하나 되는 하늘의 역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재한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타인(他人)이 아닌 동인(同人)이다.

“우리의 추구해야 하는 만남은
타인에게서 예수님을 찾는 만남이고,
예수님을 통한 만남이며,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 되는 만남이다.”

를 통해 내게 전달되기도 한다. 하나님은 말씀을 사람의 입에 넣어주시고, 서로를 통해 소망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다. 우리가 만나는 타인에게 말씀하길 예수님이 계신다. 그에게 예수님의 입술이 있으며 성령의 감동이 있다. 내가 만나게 되는 바로 그 사람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타인과의 교제를 갈망하는 궁극적 이유가 바로 이

통해 이 모든 불가능이 가능해진다. 우리의 만남 또한 마찬가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필터를 통하지 않은 불순물 가득한 상태로는 진정한 만남이 불가능하다. 양의 문을 지나가지 않으면 타인과 나 사이에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기심의 깊은 절벽만 있을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리를 건널 때 타인과의 마주침이 가능해진다.

장로칼럼

인생 칠십, 종심(從心)의 나이에

독수리 날개 위에 얹혀
날아가듯 살아온 칠십 년 세월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절망 가운데 고뇌하며 갈등하던
고난의 시간들이
돌아보니
벼랑 끝 그때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때, 축복의 시간이었다.

인생 칠십 종심(從心)의 나이이지만
아직도 나는 공사 중이다.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는
가정에서 어머니의 아들로
한 아내의 남편으로
두 자녀의 아버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준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었던
내 인생 최고의 훈련수업.
부활절 새하얀 이른 새벽 진새골 계곡에서
눈물, 콧물 흘리던 그 감격의 아침을
어찌 잊을 수 있으며
아들딸이 내 동지를 떠날 때까지
아침마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하는 아버지가
될 수 있었다.

순(筭)에서
날마다 말씀묵상을 배우고
순 식구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며
서로의 삶을 나눔으로써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들이었으며

공동체에서
나의 모난 부분들이 부딪힐 때
힘들고 괴로웠지만
깎이고 갈리는 아픔을 통해
동글동글, 동글넓적, 생긴 모양에 따라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 받는
반짝반짝 물결로 거듭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순과 공동체 등 여러 자리 곳곳에
귀한 만남의 축복들을 허락하시고
나로 나 되게 하는 은혜를 베푸사
생명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일대일(One to One)로 만나
말씀묵상을 배우며 가르치는
기도를 배우며 가르치는
삶을 배우며 가르치는
서로가 서로에게 주고받으며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가!

농어촌교회를 품고
기도로 준비하며 우린 하나가 될 수 있었고
섬기고 돕는다고 갔지만
오히려 섬김과 은혜를 받고 돌아왔다.

도시 교회의 모태가 된 농어촌교회는
노인 몇 분밖에 안 계시는
기슴 아픈 현실 앞에
사랑의 빛진 자로
빛 깊은 삶을 찾아야 하리라.

미션트립에서 만났던
어린 영혼의 뚝뚝뚝뚝한 눈망울들이
지금도 나를
보내는 선교사로
고사리손 흔들어 부르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의 창궐로
교회의 공예배가 중단된 아찔이십년.
미증유(未曾有)의 이 시간에
주의 백성인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주의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이 땅을 고쳐주시리라 믿는다.

매일매일 이별을 하는 오늘
무심히 보낸 하루의 시간들이
아쉬움으로 남았는데
아낌없이 불태우고 깊이 침잠(沈潛)하는
석양의 붉은 노을은
어둠 헤치고 내일의 새벽을 깨우는
여명(黎明)에
찬란한 아침을 여는
희망의 태양으로 부활하리니
나에게

남은 날 계수하는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사
때가 악한 어둠의 시대 가운데
세월을 아끼는 남은 자이고 싶다.

미래를 열어나갈 다음 세대 자녀들을
하나님의 ‘생명씨개’ 안에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길 기원하고
나의 손주들이
비바람, 눈보라 치는 세상 속 험난한 강물을
바르고,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징검다리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라
고희(古稀) 일흔의 나이에
은퇴라는 새로운 노년의 삶을 준비하며
날마다 말씀묵상과 기도로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할아버지가 되기 위해
이 아침에도 간절히 소망하며
두 손을 모아본다.

*이 시는 권용성 장로가 시무장로 은퇴의 소식을 담은 글이다. 종심(從心)은 논어 위정편에 ‘칠십이종심소욕불유구(七十二從心所欲 不踰矩)’에서 나온 말로, 나이 칠십 세에 마음에 하고자 하는 대로 하여도 절대 법도를 넘어서거나 어긋나지 않았다는 뜻이다.



권용성 사역장로
(경기A공동체)



주일강단

〈5면에 이어〉

새로운 피조물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18~19절).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소외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 분열된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 원인은 인간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내었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듣지 않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깨어진 소외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미친 사람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화목하려고 일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 편에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다고 하면서 결국 자기중심적인 체계를 만들 뿐입니다. 종교 역시 그러한 형태입니다. 여러분, 갈등 당사자끼리 진정한 화목을 이루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반드시 제3자가 도와줘야 합니다. 더욱이 부당한 취급을 받은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가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화목을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역사 속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을 요청한 이들은 모두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깨어진 관계의 원인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당한 취급을 받은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화목의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모든 것들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죄가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죄는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죄인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었고, 우리 안에 죄가 인격적인 나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전반부와 21절을 연결해서 읽으면 문맥이 이어집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19a, 21절).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대가를 죄인들에게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죄와 죄인을 하나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에게 대신 짊어지게 하시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것에서 그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삶과 인격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는 말씀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죄 있는 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값을 죄가 없으신 분에게 대신 짊어지게 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하게 여겨야 합니다. 낯설게 여겨야 합니다. “왜 그러셔야만 했습니까?”라는 질문이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의 값을 묻지 않으시고 죄가 없는 분에게 나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어떠한 간격도 없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 외에는 불필요한 지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화목 지수’ 평가가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화목한가, 마음의 어려움이 있거나 질문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먼저 누구에게 말하는가, 기쁜 일이 있을 때 누구와 먼저 나누고 싶은가 등의 항목을 포함하면 화목 지수가 나올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화목한지를 날마다 질문해야 합니다. 화목은 죄가 해결되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이 화목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화목하십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십니까? 하나님 얼마나 가깝게 지내십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십니까? 화목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반드시 직분을 받습니다. 바로 다른 이들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절이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권면하시는 것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해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18~20절).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대사이자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영혼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함을 받습니다. 섬김을 기뻐합니다. 나눔을 기뻐합니다. 자신을 내어 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과 질병, 재난 속에서도 평안과 기쁨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화목하라”는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십시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선교사 자녀들의 간증 그리고 고백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어릴 때부터 중국에서 자랐습니다. 태어난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아서 엄마 품에 안겨 중국으로 왔습니다. 아파트 단지, 집, 학교, 한인도서관, 교회가 제 생활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곳이 익숙했고 저에게는 고향 같았습니다. 방학 때면 아빠와 엄마를 따라 시골에도 방문하고, 중국인 언니 오빠들도 우리랑 잘 놀아주었습니다. 고향 같은 곳에서 10년간만 살고 있었습니다.

2019년 7월 어느 날, 우리 가정은 중국에서 완전히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닌 MK학교는 학생 수가 많지 않았지만, MK들이 함께 배우고 자라는 곳입니다. 어느 날 우리 학교에 수십 명의 공안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때 담임선생님께서 교실 문을 잠그고 우리와 함께 기도하자고 하셨습니다. 공안들이 갈 때까지 우리는 숨죽이며 기도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에게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공안이 찾아온 이유는 학교가 아파트 단지 내에 있어서 시끄럽다는 거였지만 사실은 선교사를 쫓아내고 학교를 없애기 위해서였습니다. 갑자기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교장선생님이 먼저 추방되고,

학교가 위기상황이 되었습니다. 함께 공부하던 언니 오빠들, 친구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몇몇은 아직 중국에 있고 대부분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대만 등지로 흩어졌습니다. 우리 가족은 라오스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교회에 가면 매주 송별회가 있었습니다. 헤어짐이 아쉬웠지만 함께 식사하고 이별했습니다. 우리 가족도 한국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나오게 된 우리를 교회가 따뜻하게 섬겨주셨습니다. 갑자기 들어와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숙소 앞에 생필품이 들어 있는 상자를 두고 가신 분도 있었습니다. 따뜻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나와 언니는 엄마와 함께 다시 중국에 들어갔다가 5개월만에 다시 한국으로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엄마가 공부를 마칠 즈음 비자 기간이 만료되어 데는 중국에 남아 있을 수 없어서 철수하게 된 것입니다. 짧은 기간 다시 준비하고 라오스로 오게 되었습니다. 라오스가 더워서 적응하느라 매우 고생했습니

우리 가족에게 응원의 박수를

다. 학교를 오가는 차가 없어서 걸어 다녀야 했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고 얼굴이 빨갛게 익어서 오기 십상이었습니다.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는 처음이었습니다. 얼음물과 선풍기, 에어컨이 때려야 땀 수 없는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제 몸에 땀띠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다니는 학교는 VGGS(Vientiane GAIN Glory School)입니다. 우리 학교는 자기 주도형 학습으로 혼자서 공부합니다. 물론 선생님도 도와주실 때도 있습니다. 처음 이 학교에 왔을 때 영어로 공부하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영어로만 공부해 본 적이 없어서 낮은 학년부터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속상했습니다. 일 년이 지난 지금은 많이 따라잡았습니다. 여기 와서 두 명의 친구가 생겼습니다. 친구가 생겨서 너무 다행입니다. 한 명은 여기에 온 지 2년 된 아이고, 한 명은 여기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라오스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그다지 친숙한 느낌을 주지는 못합니다. 제가 아직 영어와 라오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충분히 공감해주지 못하기 때문

인 것 같습니다. 영어 실력이 좋아지거나 라오스 말을 이해하게 되면 다른 친구들과도 친해 지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배운 영어 찬양을 부르면서 춤추는 것을 좋아합니다. 지난 학기에는 찬양과 율동을 잘해서 500달러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새로운 동아리 켈트반에 들어갔습니다. 아직은 잘 못하지만 재미있습니다. 요즘 저의 취미는 그리기와 만들기입니다. 새로운 것들을 만들 때마다 성취감을 느낍니다. 여기 와서 일 년 동안 키가 10센티 정도 자랐습니다. 키가 많이 자라서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일 년 동안 적응하느라 고생했습니다. 특히 사춘기인 언니는 이곳에 적응하는 것이 저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일 년 동안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모두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 전유진(라오스)

* 이 간증은 선교사 자녀 간증집 《마주보다》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2000선교본부 홈페이지(www.2000mission.org)에서 더 많은 선교사 자녀들과 선교사들의 간증을 볼 수 있습니다.



2021 3월 아이스쿨 강좌 안내

풍당 온라인 강의(풍당 마이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해야 학점 반영)

구분	과목	강의개시	강사/소속	총편수/ 학점	문의
성경	OBC 갈라디아서	4월 12일~5월 31일	박종길 목사 / 온누리교회	15/2학점	010-5315-8729 *아이스쿨로 신청후 시청 *중복 신청 불가 *풍당 고객센터 02-792-0691 *학사운영 문의 onnuricaring@gmail.com *학점 반영 문의 ischool@onnuri.org
성경	OBC 빌립보서	4월 12일~5월 24일	이기훈 목사 / 온누리교회	15/2학점	
영성	C.S.Lewis가 제시하는 예수그리스도	상시 수강	이재훈 목사/ 온누리교회 박성일 목사 / 필라델피아 기쁨의교회	5/0.5학점	
기도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상시 수강	이인호 목사/더사랑의교회	12/1.2학점	
영성	유기성 목사의 예수동행일기	상시 수강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30/2학점	
성경	세상을 바로 보는 눈 '기독교세계관'	상시 수강	류현모 교수/서울대 치의학대학원	10/1학점	
사회참여	크리스천의 슬기로운 직장생활	상시 수강	방선기 목사/직장사역연구소	8/0.8학점	
성경	예수가 전한 팔복	상시 수강	화중부 목사/남서울교회	10/1학점	

공동체 OBC(필수)

공동체	스쿨명	학습 시작일	실시간 혹은 업데이트 일시	강의구분	문의
고양은평	요한 1,2,3서	3월 1일	동영상 강의 (금&토) 상시 실시간 강의 (일) 오후 5시~6시	유튜브/실시간 강의 병행	010-9115-3295
서대문	큐티	3월 4일	매주 (목) 오후 8시~10시	실시간 강의	010-2093-7300
동대문중랑	일대일양육자반	3월 6일	매주 (토) 오전 9시~11시	실시간 강의	010-9265-1532
강서	큐티	3월 15일	매주 (목) 오후 8시~9시 30분	실시간 강의	010-3630-5799
송파B	갈라디아서	3월 25일	매주 (목) 오후 7시 30분~9시	실시간 강의	010-6405-2290
부천	빌립보서	3월 27일	매주 (토) 오전 10시~12시	실시간 강의	010-4899-9459
수원 남누리	OBC 갈라디아서	3월 7일	매주 (일) 오후 3시~5시	실시간 강의	031-895-6500
수원 서누리	OBC 이사야1	3월 9일	매주 (화) 오후 7시 30분~9시	실시간 강의	031-895-6500
수원 북누리	OBC 이사야1	3월 9일	매주 (화) 오후 8시~9시 30분	실시간 강의	031-895-6500
수원 동누리	OBC 하나님의 성품	3월 13일	매주 (토) 오전 7시~9시	실시간 강의	031-895-6500
수원 동누리	OBC 이사야1	3월 14일	매주 (일) 오후 4시~6시	실시간 강의	031-895-6500
대전	하나님의성품	3월 9일	매주 (화) 오후 8시~10시	유튜브 업데이트	042-825-3642
대전	이사야1	3월 11일	매주 (목) 오후 8시~10시	유튜브 업데이트	042-825-3642
남양주	일대일 양육자반	3월 14일	매주 (일) 오후 2시~4시	실시간 강의	010-3786-6298
평택	하나님의 성품	3월 20일	매주 (토) 오후 8시~10시	실시간 강의	031-651-9680

사역팀 필수

캠퍼스	스쿨명	학습 시작일	실시간 혹은 업데이트 일시	강의구분	문의
서빙고	OBC 오픈반 비전통독	3월 3일	매주 (수) 오전 10시~11시30분	실시간 강의	010-9041-5538
서빙고	영어예배 큐티 스쿨	3월 6일	매주 (토) 오후 2시	실시간 강의	02-3215-3684
서빙고	일대일 양육자반 신원석 목사반	3월 6일	온라인(토) 오전 9시~11시 오프라인 전환시 (일) 오전 8시10~10시	실시간 강의	02-3215-3220
서빙고	영어예배 순장학교	3월 6일	매주 (토) 오후 1시~3시	실시간 강의	02-3215-3684
서빙고	147기 큐티스쿨(동영상)	3월 7일	매주 (일) 해당 주차 강의 링크 공지	유튜브 업데이트	010-3766-9881
서빙고	온누리선교학교 Why Mission? 서빙고 본부 86기	3월 9일	매주 (화) 오후 8시~10시	유튜브 업데이트	010-9663-3292
서빙고	148기 큐티스쿨(실시간)	3월 10일	매주 (수) 오후 1시 30분~3시	실시간 강의	010-3766-9881
양재	보라 통독 심화반(저녁반)	3월 15일	매주(월) 오후 8시~10시	온라인 /실시간 강의	010-7938-9157
양재	보라 통독 심화반(주간반)	3월 16일	매주 (화) 오전 10시 30분~12시 30분	온라인 /실시간 강의	010-7938-9157
양재	일대일 양육자반	3월 21일	매주 (일) 오전 8시 50분~10시 40분	온라인 /실시간 강의	02-570-7349
수원	일대일 양육자반	3월 21일	매주 (일) 오후 4시~6시	실시간 강의	031-895-6500
대전	큐티스쿨	3월 13일	매주 (토) 오후 2시~4시	실시간 강의	042-825-3642
대전	일대일 양육자반	3월 16일	매주 (화) 오후 8시~10시	실시간 강의	042-825-3642
남양주	하나님의 성품	3월 18일	매주 (목) 오후 7시 30분~9시	실시간 강의	010-2833-1257
평택	일대일 양육자반	3월 13일	매주 (토) 오후 2시~4시	실시간 강의	031-651-9680

사역팀 선택

캠퍼스	스쿨명	학습 시작일	실시간 혹은 업데이트 일시	강의구분	문의
서빙고	JDS 예수제자학교 서빙고 저녁반	3월 6일	매주 (목)오후 7시 20분~9시 40분 매주 (토) 오후 2시 30분~8시 40분	실시간 강의	02-3215-3220
서빙고	기쁨의 샘 12기	3월 11일	매주 (목) 오후 7시 50분~10시	온라인/실시간 강의	010-8985-4393
서빙고	전도폭발훈련 (주간반) 1단계	3월 15일	매주 (월) 오전 10시~12시	실시간 강의	010-3801-1215
서빙고	전도폭발훈련 (주간반) 2단계	3월 15일	매주 (월) 오전10시~12시	실시간 강의	010-3801-1215
서빙고	전도폭발훈련 (주간반) 3단계	3월 15일	매주 (월) 오전 10시~12시	실시간 강의	010-3801-1215
서빙고	전도폭발훈련 (주간반) 4단계	3월 15일	매주 (월) 오전 10시~12시	실시간 강의	010-3801-1215
서빙고	전도폭발훈련 (야간반) 1단계	3월 15일	매주 (월) 오후 7시 20분~9시 20분	실시간 강의	010-8625-9000
서빙고	전도폭발훈련 (야간반) 2단계	3월 15일	매주 (월) 오후 7시 20분~9시 20분	실시간 강의	010-8625-9000
서빙고	전도폭발훈련 (야간반) 3단계	3월 15일	매주 (월) 오후 7시 20분~9시 20분	실시간 강의	010-8625-9000
서빙고	전도폭발훈련 (야간반) 4단계	3월 15일	매주 (월) 오후 7시 20분~9시 20분	실시간 강의	010-8625-9000
서빙고	온누리전도학교	3월 21일	매주 (금) 오후 8시~9시	온라인/실시간 강의	010-5219-8707
양재	전도폭발훈련 (주일반) 1단계	3월 14일	매주 (일) 오후 2시~4시	실시간 강의	010-8711-2831
양재	전도폭발훈련 (주일반) 2단계	3월 14일	매주 (일) 오후 2시~4시	실시간 강의	010-8711-2831
양재	전도폭발훈련 (주일반) 3단계	3월 14일	매주 (일) 오후 2시~4시	실시간 강의	010-8711-2831
양재	전도폭발훈련 (주일반) 4단계	3월 14일	매주 (일) 오후 2시~4시	실시간 강의	010-8711-2831
양재	전도폭발훈련 (수요반) 1단계	3월 17일	매주 (수) 오후 12시 30분~3시 (현장실습별도)	실시간 강의	010-6288-4825
양재	전도폭발훈련 (수요반) 2단계	3월 17일	매주 (수) 오후 12시 30분~3시 (현장실습별도)	실시간 강의	010-6288-4825
양재	전도폭발훈련 (수요반) 3단계	3월 17일	매주 (수) 오후 12시 30분~3시 (현장실습별도)	실시간 강의	010-6288-4825
양재	양재 무릎선교 기도학교(19기)	3월 18일	매주 (목) 오전 10시~12시 30분	온라인/실시간 강의	02-570-7277
양재	좋은어머니스쿨1_말씀기도학교	3월 19일	매주 (금) 오전 10시~11시 30분	온라인/실시간 강의	02-570-7354
양재	온누리전도학교	3월 21일	매주 (금) 오전 10시~14시 (조별모임 화요일 오후 8시~8시 50분)	온라인/동영상	010-9001-6243
수원	무릎선교기도학교	3월 19일	매주 (금) 오전 10시 30분~12시	실시간 강의	031-895-6500
대전	가스펠 프로젝트3	3월 11일	매주 (목) 오후 8시~10시	실시간 강의	042-825-3642
대전	무릎선교기도학교	3월 18일	매주 (목) 오전 10시~12시	실시간 강의	042-825-3642
강동	무릎선교기도학교	3월 17일	매주 (수) 오후 2시~4시	실시간 강의	010-3253-3235



콘텐츠를 보다, 복음에 빠지다

폰당



온누리교회 양육과정에 '폰당'이 함께 합니다.
신앙 성장을 돕는 '폰당'의 순수 복음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학점 인정 콘텐츠

자세한 사항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총 15강

박종길 목사의 갈라디아서

OBC 갈라디아서
박종길 목사 / 온누리교회

총 15강

이기훈 목사의 빌립보서

OBC 빌립보서
이기훈 목사 / 온누리교회

총 5강

C.S루이스가 만난 예수그리스도

이재훈 목사 / 온누리교회
박성일 목사 / 필라델피아 기쁨의 교회

총 12강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이인호 목사 / 더사랑의교회

총 30강

예수동행일기

유기성 목사 / 선한목자교회

총 10강

세상을 바로 보는 눈 '기독교 세계관'

류현모 교수 /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총 8강

크리스천의 슬기로운 직장생활

방선기 목사 / 직장사역연구소

총 10강

예수가 전한 '팔복'

화종부 목사 / 남서울교회

  '폰당' 앱 다운로드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에서 '폰당 Fondant'을 검색하세요

fondant
'폰당' 문의 02-792-0691